

P·K 및 M·K 수련회에 대한 소고

# 목회자 자녀라는 동질감 속에서 좋은 유대관계 형성



성결교회복음화목회자협의회(이하 성목협)에서는 지난 2005년 제1회 목회자 자녀(이하 P·K) 수련회를 개최하여,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참가하여 큰 은혜를 받고, 같은 교단의 목회자 자녀라는 동질감 속에서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신앙적으로도 많은 비전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필자의 두 자녀도 중·고등학교 시절 P·K 수련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경험(사실 목회자 자녀로 성장하면서도 개척교회나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은 수련회를 하지 못하기에)을 하고 지방이나 지역은 다르지만, 다른 목사님 자녀들과 선·후배의 유대관계를 갖는 것을 보았다.

목회자 자녀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금방 친해지고 서로 배려해주며, 수련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훗날 성장하여 성결대에 진학하여 선·후배로 만나는 모습에서 필자는 이 P·K 수련회의 필요성과 이런 수련회를 열어 준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컸다. 필자의 자녀도 성결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스태프로 참가해서 후배들을 돌보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가졌었다.

그로부터 9회에 걸쳐 P·K 수련회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 P·K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2018년 9회를 끝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5년여 중단되었다가, 가나안 코로나19의 터널을 넘어 드디어 2024년 겨울 제10회 P·K 및 M·K 수련회로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의 P·K 수련회는 부모님들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교육의 장인 '목회자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자녀들은 인근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목회자평생교육'이 지난해 11월에 열린 관계로 별도로 데리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5년여를 쉬어 가 있었지만, 그래도 45명의 P·K들이 참가 신청을 하고 감가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선배 목사님들은 물질로 후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수련회로 진행되었다.

첫날 처음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이내 한 집안의 형제, 자매처럼 서로 배려하고 챙기며 어울리는 모습에선 뭉클함마저 전해왔다. 여기에 찬양 인도 등 스태프로 참가한 성결대 솔라피데 찬양단의 지체들은 섬기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이후에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후회까지 하고 싶다는 피드백이 있어 선배로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둘째 날 저녁에 격려 방문한 성결대 신학대 학생회 임원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오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어 성결대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학교를 알리는 시간을 통해 예성의 다음 세대들이 교단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 소중한 시간을 보았다. 수련회 이후 아이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성결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게다가 이는 목사님 자녀는 자신의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성장해 온 자신의 성장 과정을 기억하며 소정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참가가 6명에게 전달하는 훈훈한 광경이 있었다.

이 수련회를 개최한 성목협에서는 최고 안락한 잔치리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숙소나 식사 프로그램 면에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상당했다. 수련회 이후 아이들이 스태프로 선진 목사님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감동과 고마움을 지속해서 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 본다.

P·K 및 M·K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소망이 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가정들 넘어 교단의 소중한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설길 수 있는 행복감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게다가 단체를 초월하여 우리의 일로 이와 같은 사역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아울러 기간도 아이들 방학 중으로 지방이나 간찰외별로 함께 편입해 주시므로 되도록 더 많은 자녀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충분한 홍보와 관심 속에 모든 자녀들이 참가하여 은혜를

받고, 비전을 품는 수련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은 수련회에 참가했던 학생과 부모님의 피드백 중 일부이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OOO)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OO라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고 감사해서 연락드려요.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에 대한 궁금증도 알아간 것 같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니다. 목사님 자녀라고 하면 뭔가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다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색달랐고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시고 노력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만드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아서 아쉬워요. 수련회에 오기 전에 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가고 거부감이 많았는데,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해가 될 수 있었어요!! 집을 떠나 떠나고 세상에 나가는 것 같아서 출가분하고 칩칙했던 제 마음에 빛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의 마음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같이 만나기라도 하면 좋겠지만, 내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솔라피데 분들 한번 한번 연락 못 드리지만, 목사님께라도 연락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목사님 자녀로서 치유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뭔가 개운하고 집 안을 내려놓는 느낌! 진짜 매달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련회 기간이 빨리 간 것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모님의 피드백 중 일부입니다.  
“친애하는 목사님! 주님이 계셔서 더 좋은 아침입니다.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마치고 마땅히 연락을 드려야 마땅했지만 분주함에 발목 잡혀서 이제야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어제까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교단 멋져요.' '역대 최고예요.' '성결대 갈래요.' 성결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목협과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아이들에게 '으쓱'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복양지와 가정을 위해 더불어 성목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OO교회 OO 목사 드림”

심상훈 목사  
고은교회



말씀의 초대 | 엡 4:25-32

## 경건한 신앙인의 삶



전은희 목사  
본일산교회  
고양지방회장

경건한 신앙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더럽다는 것이 가지 없는 것, 부패한 것, 슬모았다. 유익하지 않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지만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삶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 2. 악의를 버려야 한다(31).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윤리적인 불법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육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부분까지도 언급하신다. 특별히 버려야 하는 것들 가운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아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한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제거한다(Get rid of)는 의미를 가진다.

‘노함과 분냄’이란 순간순간 차오르는 격분과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노여움을 말한다. ‘떠드는 것’은 사람을 비난하고 혹평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소리 내는 것을 말한다.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 비방하는 것은 고의로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신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함께 버려라 하고 권면한다.

### 3. 용서해야 한다(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forgiving each other)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32)고 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며 고된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몸통 상부의 기관들을 의미하며 특별히 심장과 폐와 간장을 지칭하였다. 용서하는 것의 첫걸음은 심장과 폐와 간장에 위치한 가슴으로부터 공허의 마음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깊이와 넓이만큼 나아가야 한다.

속된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과 악의를 버리고 용서의 실천으로 경건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는 성령은 권면한다.

### 1. 거짓을 버려야 한다(25).

‘버리고’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put off). 거짓된 것들을 바로 그렇게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것은 거짓된 삶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언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령은 권면한다.

# 제29기 해외선교사훈련원 훈련생 모집

총회에서 운영하는 해외선교사훈련원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예비선교사들을 모집 및 선발하여 매년 훈련시키고 있으며, 2024년도 제29기 해외선교사훈련원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앞으로 본 교단에서 총회선교사로 나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본 훈련과정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훈련일정**: 1차(국내) - 2024년 5월 22일(수) ~ 5월 24일(금) / 2박 3일
  - 장소: 청풍리조트
  - 2차(해외) - 미정
  - 위탁교육 실시: 해외교육 위원이 소수일 경우 개별적으로 본 교단 선교사들에게 위탁교육 실시
- **훈련내용**: 1차 - 신학 및 선교훈련, 위기관리훈련 및 공동체훈련, 사역훈련, 선교행정훈련 등
- 2차 - 해외적응훈련 및 실습
- **주 강사**: 국내외 선교사 및 선교학 교수와 선교전문가
- **방 법**: 1차 - 국내 강의
- 2차 - 해외선교지 현장실습
- **유의사항**: ① 1차와 2차 훈련과정은 모두 필수과정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② 1차 국내훈련은 합숙훈련이므로 세면도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강의시간표는 총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후 공지합니다.

- **모집대상**: 목사,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 **훈련비**: 1차(국내) : 개인 20만원 / 부부 30만원
- 2차(해외) : 본인 항공료 부담, 훈련비 50% 부담(해선위 후원 50%)
- 제작번호: 국민은행 / 533301-01-117668 / 예성총회
- **원서접수**: ① 우편: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우편번호 03026
- 담당국: 선교국 / 전화번호 070-7132-0030
- ② e-mail : hursb5@msn.com
- ③ Fax : 02)725-7079
- **접수기간**: 2024년 4월 8일(월) ~ 2024년 5월 20일(주일)
-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간증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향후 선교계획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사훈련원**  
03026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선교국  
www.sungkyul.org / TEL. 070-7132-0030

<b>해선위위원장</b>  노은식 목사 주님앞에제일교회	<b>해외선교사훈련원 훈련원장</b>  홍사진 목사 주전양교회	<b>해외선교사훈련원 운영위원</b>  강명국 목사 늘사랑교회	<b>해외선교사훈련원 운영위원</b>  라건국 목사 복음영광교회
<b>해외선교사훈련원 운영위원</b>  최상훈 목사 행복한교회	<b>해외선교사훈련원 운영위원</b>  허상범 목사 총회선교국장	<b>해외선교사훈련원 교수차장</b>  전명호 목사 서삼교회	<b>해외선교사훈련원 사무차장</b>  이상복 목사 별명교회